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들은 도서관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기 시작했다. 나는 도서관 2층 열람실에 가득히 앉아 있는 학생들을 향해 유인물을 뿌리며 외치기 시작했다. “정의의 학도여, 일어나라” “우리의 스승을 석방하라” 등등. 얼마 지나지 않아 데모 노래였던 ‘정의가’ ‘아침이슬’ ‘투사의 노래’ 등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학생들이 도서관 안으로 들어와 농성하면서 경찰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6·29 시위를 주동했던 우리 14명의 학생들은 도서관에서 경찰과 대치하다가 연행되고 구속되었으며 그 길로 학교에서 제적되었다. 모두 긴급조치9호 위반이었다.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데모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구속하고 학교에서 제적시키는 당시의 사회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만큼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였다.

나도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했다고 생전 처음 감옥소를 구경하게 되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출옥했던 나는 위험인물로 표적이 되어 다음해인 1979년 5월 다시 정보기관에 의해 강제 입영당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입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남민전 사건과 10.26 박정희 암살사건이 발생했고 이어 그 다음해인 1980년 5월에는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했다. 6.27 교육지표사건과 6·29 전남대 민주 학생선언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유신독재정권의 폭압을 깨뜨린 신호탄이자 전초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0.26 당시 나는 전방에서 작대기 하나 달고 한창 신병생활로 정신없던 시절이었다. 10월 27일 새벽 비상명령 속에 눈을 비비며 우리는 완전무장하고 각 참호에 배치되었다. 순간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아침 식사시간 무렵 예야 박정희 대통령의 유고 소식을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을 수 있었다.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다. 독재자의 죽음 - 나는 그것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나는 전우들의 눈을 피해 혼자서 PX로 달려가 음료수로 목을 적시며 속으로 쾌거를 부르짖었다. 역사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1982년 3월 대학의 품안에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긴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악법도 법이라고 읊조리면서 독배를 마셔야 했던 소크라테스의 아픔은 이제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1970년대 대학 시절, 그것은 내게 있어서 어둡고 쓸쓸했던 기억의 저편으로 남아 있다.



유인택 서울대 제약학과 75학번.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주)원시대 대표이사(현), (주)제플린엔터테인먼트 대표(현), (사)문화산업포럼 공동대표(현)

‘만다라’. 아무 사회적 의식없이 세상과 등지고 밤무대를 누비는 부류쯤으로 인식되는 게 보통이다. 나는 1978년 긴급조치9호 위반으로 감옥에 갈 때 이념 서클 소속의 운동권이 아니라 자칭 ‘만다라’였다.

1975년 누구나 부러워하는 서울대학생이 되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매일 데모와 최류탄, 그리고 휴교... 그리고 곧이어 긴급조치9호 발동!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험악한 학내 분위기 속에 상아탑에 안주하지 못해 방황하던 나는 신입생 시절을 마치고 2학년 때 약대에 진입한다.

등교길 캠퍼스 잔디밭에 진을 치고 있는 전경들, 건물에 들어서면서 수위실에서 마주치는 사복 형사, 패배감에 젖은 학우들, 이러저런 꼴이 모두 보기 싫어 술로 세월을 보내다 우연히 약대 연극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곧이어 나는 총연극회 주최의 마당극 ‘허생전’ (이상우 연출/류인렬 기획)에 출연하였고, 그러면서 탈춤을 배웠다. 당시 탈춤과 연극을 가르쳤던 분들이 ‘한두레’라고 하는 연희 단체 멤버들과 연극회 선배들이었다. 그때 만난 분들이 교주(?) 채희완(현 부산대 무용과 교수)을 위시하여 김지하, 황석영, 정한룡, 홍세화, 이에주, 임진택,

김민기, 이상우, 김영동, 장선우, 김석만, 김광립, 김명곤, 박인배, 박우섭 같은 기라성 같은 스타 탄따라들이었다.

연극은 나에게 탈출구나 마찬가지로였다. 무기력한 캠퍼스 분위기 속에서 '문화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무기가 될 수 있었다. 10명만 모이면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긴급조치 아래에서 학내 시위는 쑥 들어갔고, 모든 집회가 불허된 상황에서 연희 공연은 유일한 합법적 집회 수단이었다.

모두가 학내에서 숨죽여 살 때, 나는 전공인 약학에는 이미 흥미를 잃은 채 연극반과 '한두레'를 통해 학내와 학외에서 신나게 연극 이론을 공부하고, 봉신탈춤, 양주별산대, 고성오광대 등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며 탈춤을 배우고, 풍물을 배우고, 밤새도록 술을 먹으며 선배들과 얘기하고 젊음을 분출하였다. 이런 인연이 결국은 약대 출신인 나를 연극기획자, 민중문화운동가, 그리고 지금의 영화제작자로 만들게 된 것이다.

1977년 대학 3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이념 서클들은 여름에 농촌봉사활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연극회에서는 '탄따라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하여 농활팀과 연계해 연극공연을 농촌에서 하기로 하고 김지하 작 농촌마당극 '진오귀'를 준비했다. 민중의 애기를 담은 예술을 전문 공연장이 아닌 민중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되돌려준다는 철학적 사고가 바탕이 되었다. 긴급조치의 감시망을 피해 관악캠퍼스에서 멀리 떨어진 이문동 무용연습실에서 임진택 선배의 지도로 연습을 했다. 당시 출연진에는 독도다큐멘터리로 유명한 KBS 피디 최훈근, 영화기획자 신철, 영화감독 여균동 등이 함께 했다.

이념 서클과 연결돼 있던 류인렬의 지휘로 공연팀은 어디서 누구와 공연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강원도 정선으로 향했다. 철저한 보안 유지 때문이었다. 가던 도중 원주 치악산 구룡사 계곡에서는 '마당'이라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기 위해 야외 연습도 했다.

긴급조치 상황 아래에서 자칫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긴장감과 공연을 앞둔 설렘 속에 새벽 즈음해 드디어 공연지인 정선역에 도착했다. 그런데 농활팀에서 학생이 나와서 전하는 말이 짝새가 떴으니 서둘러 서울로 돌아가라는 얘기였다. 모두들 허탈해졌다.

선배급인 류인렬과 나는 후배들 볼 낫이 없기도 했지만 그대로 물러설 수는 더욱이 없었다. 나의 고향 제천에 친척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 거기 가서 농활을 직접 하고 공연까지 해보

자고 제안했다. 결국 제천군 봉양면 어느 마을에 사전계획 없이 들어가 농활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마을 마당에서 횃불을 켜고 진오귀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아! 이것이 진정 마당극이요, 민중예술이 아니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고 어느새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형사들이 검정색 짚차를 몰고 나타났다. 시절도 시절이었지만 불법집회에다가 내용까지 불온했으니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이기에 신원 조사만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 우리는 당분간 각자 흩어져 몸조심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이렇듯 학창생활의 대부분을 학외에서 보내면서도 학내 투쟁에 대한 고민이 늘 존재했다. 연극반과 탈춤반 동료 몇이 이념 서클 출신들이 주도하는 시위에 개별적으로 참여할 게 아니라 탄따라가 탄따라답게 탄따라 방식으로 시위를 주동하고 장렬하게 감옥에 가기로 결의하였다. 그렇게 기회를 보고 있던 어느날 등교길에 학내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시위대열 맨 앞에 탈춤반 친구 성욱이 각목을 들고 설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저 친구, 탄따라끼리 따로 시위를 벌이자고 하더니 어떻게 된 거야?' 의문을 가진 채 그에게 접근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그를 엄호한답시고 가까이 따라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위대가 해산되고 성욱은 무사히 도망쳤다. 이 날이 1978년 6월 12일이다.

이튿날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등교했다. 그런데 수업 중에 형사가 보았다. 관악서로 끌려갔다. 잠시 조사할 게 있다고 했다. 당시 나는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유인태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학내 시위 정보만 있으면 약대 지도교수님과 설악산으로, 오대산으로 강제 여행을 다니곤 했었기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동자인 성욱에 대해 참고인 조사하려 하고 가볍게 생각하였다.

취조실에서 형사들이 시위 현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을 찍으라고 협박했다. 나야 이공계 출신으로 시위대열에 아는 사람이 있을 턱이 있겠는가. 그런데 사진들 속에 인문사회대 연극반 후배들이 여럿 보였다.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너석들, 우린 탄따라답게 탄따라 방식으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살자고 했건만, 탄따라들의 저항의 피는 못 속이는구먼' 하면서.

형사는 무조건 찍어내라고 으박질렀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고. 그 중에 내 모습이 보였다. "어! 여기 나 있네." 아크로폴리스 광장 계단에서 성욱이 옆에 서있는 모습이 보

였다. 형사는 “그래, 그리고 정말 아는 놈 없냐” 고 다그치다가 사라졌다. 며칠을 경찰서에서 죽치고 있다가 열흘이 지난 즈음, 나는 예상치 않게 영등포구치소로 끌려갔다. 구속 수감이 었다.

아니, 시위에 단순 가담했는데 구속이라니! 그 당시엔 시위 주동자만 구속했기에 나는 안심하고 있던 차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주동자를 잡지 못해 화가 난 당국이 핫김에 단순가담자 8명을 구속시킨 것이었다. 허참, 운 되게 없구나, 이리하여 나는 아무 마음의 준비 없이 등교했다가 곧바로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유인렬(인문대 국문과, 총연극회 괴수?)과 함께 결의했던 ‘판따라 가 주동이 되어 판따라’ 방식으로 벌이려던 시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긴급조치9호 위반 죄목의 10개월의 감옥 생활은 나에게 많은 걸 가르치고 선물하였다.

일약 민주투사와 전과지라는 명함이 평생 따라 붙게 되었고, 독방 생활 속에 처음으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4계절의 변화를 처음 깨달았고, 500여 권의 책을 읽으면서 내 인생에서 최대의 독서를 하게 되었다. 그때 읽은 밑천으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감옥은 인생의 반려자인 처를 만나는 계기가 됐고, 감옥에서 만난 이영희 선생님과 담당 변호사이셨던 홍성우 변호사님은 나중에 결혼식 주례와 증인으로 모시기도 했다. 그러니 긴급조치9호는 내 인생의 스승이요, 크나큰 선물이 아닐 수 없지 않은가! 다만 큰 형이 이미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동생인 나까지 감옥에 가게 되어 부모님께 얼마나 큰 불효인가 하는 생각에서 마음이 무거웠다.

출소 후 학교를 제적당한 상태에서 나를 반겨준 곳은 연극회 선배들(극단 연우무대)과 ‘한 두레’였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 오고 편지를 해 주었던 지금의 처는 감사의 뜻으로 몇 번 만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다. 이때 김민기 선배의 불법음반 ‘공장의 불빛’의 불법복제 사업을 하게 된다.

얼마 뒤 박정희 대통령이 죽기 한 달 전,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27개월 복무를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긴급조치 시대는 막을 내린다.

긴급조치 3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만약 그때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지 않았더라면 어

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본다. 강제 입영 당하든가, 약사자격증 따서 제약회사 다니거나 약국을 하든가, 아니면 80년대 전두환 독재 하에서 감옥에 가든가, 암만 생각해도 후회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나는 그 후에도 여전히 판따라로서 80년대 민주화운동과 민중문화운동, 마당극운동에 뛰어들어,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 활동을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과 세상을 배우고, 나를 단단하게 단련하여 왔다. 90년대 영화계로 뛰어들면서 당시 낙후됐던 충무로에서 영화계 개혁운동을 벌였는데 그것이 밑알이 되어 오늘날 한국영화의 부흥을 가져왔다고 자부심도 가지게 되었다.

이제 긴급조치 30년, 지천명의 나이 50세!

앞으로 20년, 아니 30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나에게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